

한·중·일 의장 문화 비교 연구
- 궁궐건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Korea, China and Japan

주저자 : 이현정 (Hyun-jung Lee)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공동저자 : 박영순 (Young-Soon Park)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최지영 (Ji-young Choi)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공동저자 : 황정아 (Jung-ah Hwang)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본 연구는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수혜에 의해 이루어졌음.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진행 및 방법

3. 조사 대상의 개요

4. 연구 결과

- 4-1 한·중·일의 사상 체계와 사유방식
- 4-2 한·중·일의 건축 문화
- 4-3 한·중·일 전통 궁궐의 재료 특성
- 4-4 한·중·일 전통 궁궐의 색채 특성
- 4-5 한·중·일 전통 궁궐의 문양 특성

5. 결론

- 5-1 한·중·일 삼국 의장 문화의 근간
- 5-2 한국 의장 문화의 특성
- 5-3 중국 의장 문화의 특성
- 5-4 일본 의장 문화의 특성
- 5-5 한·중·일 의장 문화의 비교

참고문헌

(要約)

새로운 문화 시대의 대두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할 증대는 한국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특히 색채와 재료, 문양을 중심으로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한 한중일 삼국 문화 속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장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지 답사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대상이 된 한중일의 궁궐은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 파악된 한국 의장 문화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의장 문화는 삼국 문화의 공통 기반을 이루는 자연 친화 사상, 조화론, 유교 문화를 기본으로 인본주의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는 중국에서의 중화사상, 일본의 집단주의적 특성과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문화와 건축 위에 나타나는 한국의 의장은 자연 재료와 자연색 사용, 자연 모티브의 문양 등의 한중일 공통적 특성과 함께 재료에 있어 자연적 가공도가 높고 대체적으로 거친 질감을 살리고 있으며 색채면에서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변화, 유사배색으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다. 또한 한국의 문양은 부드럽고 도톰한 선을 사용하여 인간적인 소박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중국의 의장은 재료의 가공도가 높고, 표면 질감이 매끈하며 색채는 매우 화려하고 사실적 표현의 장식을 주로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일본은 재료의 가공도가 높으나 질감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친 질감이 많으며 색채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무채색, 중성색을 중심으로 유사배색을 즐긴다. 일본의 문양은 표현은 매우 추상화되고 양식화되어 있으나 세부 표현에서는 기교와 장식을 즐기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It takes threesteps to proceed this study. Firstly, it needs to be established the analysis framework from the documents. In second step, the design elements - the form, the material, the pattern and the color - should be collected and investigated through the observation of the actual traditional palaces the Changduckung, the Forbidden City, the Nijo castle. The third step i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design elements from step two.

To sum up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among the design element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is as the following : It is to be noticed that the mainly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ic design are 'naturalism', 'harmonious ideas' and 'confucianism'. But the representation style of the design element is differed from the country. : The typical features of China are symmetry, glassy surface by artificial process, the meandered curve, the magnificent pattern and the constrable color. In Japan, the mathematical asymmetry, made-up rough surface by artificial skill, decorative pattern with abbreviation and achromatic color are important feature of the design element. While the major features of Korean design element are asymmetrical balance with nature, rough surface by natural process, moderate pattern and harmonious color.

(Keyword)

KOREA, CHINA, JAPAN, Design element, Identical prototype, Traditional pala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문화의 시대 대두와 서구 사회의 기능 분산은 각 국가와 민족에게 고유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성공의 모델로 생각되어온 서구 사회의 내부 모순은 동양의 사상과 가치 체계를 그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에 문화적 잠재력을 인정받은 동아시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문화권 속의 한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한국 문화를 독자성을 지닌 문화라기보다는 유사한 '동아시아 문화' 속에 위치해 인근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선별해 내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했으며, 우리 내부에서조차 다른 나라, 민족과 차별화되는 진정한 우리 것을 구별해 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 문화 위상 확립을 위해 갖추어야 할 중대한 급선무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과 차별성 비교를 통해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의 근간이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연구는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단편적 사항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한중일 삼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헌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실제 조사를 통한 현실적 자료의 제시 없이 개론적 사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어렵고 양에 비해 질적 수준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각 국가와 민족의 조형 의식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며 민족의 감정과 의식 체계, 미에 대한 기준 등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색채와 재료, 문양을 포함한 의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경우가 거의 전무하며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의 일부 부분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특히 가장 일차적이고 감각적인 색채와 형태 조성의 근본이 되는 재료, 그리고 기본적 미의식에 인간의 창의와 의지가 반영되어 조성되는 문양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실제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이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얻어낸 삼국 문화와 건축과 연결하여 의장 문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며 그 중에서도 독자성을 지닌 한국 문화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진행 및 방법

연구의 진행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한중일 의장 문화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분석의 틀' 작성과 근본이 되는 삼국의 문화와 건축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문헌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중일

전통 궁궐을 실제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측색, 자료 수집 등의 현지답사 및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답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이를 문헌 조사 결과인 삼국의 문화와 건축 특성과 연결하는 종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중일 삼국의 의장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도출해 내었으며 각국의 의장 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중에서 독특한 우리나라의 의장 특성을 선별해 내어 이를 한국 의장 문화의 정체성으로 제시하였다.

3. 조사 대상의 개요

조사의 대상이 된 전통 궁궐은 중국의 자금성, 한국의 창덕궁, 일본의 니조성이며 각 궁궐은 선행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국가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궁궐로서 선정되었는데, 전통 궁궐은 그 특성상 주택과 사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채, 재료, 문양 등의 의장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건축물들에 비해 그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선정된 궁궐은 조성 시기¹⁾와 사용자, 보존 상태, 접근성, 인류 보편의 문화로서의 가치 등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한·중·일의 사상 체계와 사유방식

한중일 삼국 문화의 근간이 되는 사상 체계와 사유 방식을 살펴본 결과, 삼국은 한자문화와 유교 문화, 조화론적 세계관, 자연친화 사상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 중 한자는 모든 사상과 법례 등의 문헌의 전달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조화론적 세계관은 음양조화론, 풍수 사상 등의 고유 사상과 불교와 도교 사상의 일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며 자연친화사상은 자연과의 조화라는 의미에서는 조화론적 세계관 속에 포함되나 한중일 삼국에서는 특별히 그 영향이 지대하게 나타났기에 따로 분리된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삼국은 차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중국은 중화사상과 상대론적 세계관, 순자연적 세계관 등이며 한국은 자연순응주의, 인본주의, 현세적 사고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집단주의와 내외의 엄격한 구분, 기능중시의 실용주의 등이 그 독자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4-2. 한·중·일의 건축문화

1) 조사의 대상인 세 궁의 건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창덕궁은 태종 5년(1405년), 자금성은 영락15년(1417년)에 창건되었다. 니조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인 1601년에 창건되었다. 세 궁은 모두 근세동안에 창건, 중건, 보건되었다.

삼국 건축 문화의 공통성은 위계적 공간질서, 자연과의 상생 관계, 음양조화론 및 풍수사상에 의한 건축 조형, 목조 가구식 건축, 내외부의 중첩과 상호관입, 천연재료의 사용, 의미론적 색채관, 문양의 상징성 등으로 특성화할 수 있으며 이중 위계적 공간질서와 목조가구식 건축은 유교에 의한 계급주의와 상고주의, 근검절약 정신과 감정의 절제 등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존하는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관과도 연결되어 있다. 또한 자연친화화 조화론을 중시하는 한중일 삼국의 정신 문화는 자연과의 상생관계를 중시하고 음양조화론 및 풍수 사상에 의한 건축 조형, 내외부의 중첩과 상호관입, 천연 재료 사용, 의미론적 색채관, 문양의 상징성 등 모든 특성에 고루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한자 문화의 융성은 문양에 있어서도 한자를 사용하는 등의 특색을 낳게 하였다. 한중일 삼국은 건축 의정 문화에서도 차별성을 나타내는데, 공간 조직과 구성면에서는 중국은 가장 폐쇄적이며 엄격한 좌우 대칭의 평면을 갖고 있다. 또한 목조 본위의 건축으로 지붕과 기단²⁾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두공과 같은 세부의 가시적 수법이 발달했다는 특색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건축 조형은 중국의 문화적 특색과 연결되어 있는데, 유교에서 비롯된 가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는 폐쇄적 구성을 낳았으며 균등분할 상속제의 가족관계와 풍수지리, 음양오행 사상은 좌우대칭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중국인의 순자연적 세계관은 목조 본위의 건축이 가능하게 했으며 유교적 상고주의와 보수주의, 중화사상, 풍토 및 민족 사상의 발현으로 지붕의 중요성과 지붕에서의 곡선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건축에서의 기단의 중요성은 유교에 의한 계급주의의 영향과 시각적 균형을 위한 조화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예제를 중시하여 나타난 두공과 같은 세부의 가시적 수법 발달은 유교적 상고주의와 보수주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공간조직과 구성은 '얹힌다'³⁾ 또는 '읍경'의 개념으로 불리우며 가장 자연 순응적이고, 비대칭 구성⁴⁾을 선호하며 선적 구성에 의한 유연성을 강조한다. 또한, 채와 간이 분화하며 개방성과 폐쇄성이 공존하는 것도 한국 건축 조형의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주로 자연 친화 사상과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의 영향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사용하는 인간이 의한 최종적 완성을 도모하는 장치는 인본주의 의식의 발현으로 보인다. 유교에서 비롯된 부자유친과 부부유별의 개념은 채와 간의 분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동시에 풍토와 조화론에서도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비롯되는 비대칭과 수평적 전개를 중시하며 전이공간이 존재하고 급경사의 지붕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이는 자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의식의 발현으로 개인의 독자성보다 집단주의 의식을 강조하는 일본 문화의 한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의 경계 의식의 모호함은 건축에서의 전

이 공간을 존재하게 했으며 풍토에 의한 급경사의 지붕은 일본인들로 하여금 아련한 민족 감정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 사용에 있어서도 삼국은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은 오재병용, 백도개홍의 특성을 보이며 이는 예제를 중시하는 유교적 상고주의와 상대관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조화론, 현존하는 세계를 중시하는 순자연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중국 재료에서의 가장 큰 특성은 유리⁵⁾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화려한 색을 숭상하는 민족 의식과 중화 사상의 표현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재료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목재와 석재의 사용으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자연친화 사상과 조화론에 근거하며 현재 중심의 세계관의 작용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재료 사용은 풍토에 근거한 목조만의 건축과 선과 면의 균형을 통한 조화를 추구하는 사용에 있어서의 엄격함에 그 특성이 있는데 이는 개별의 독자성과 존재성보다 전체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일본의 집단주의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제에 따라 신전 건축 등에는 편백나무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유교적 상고주의에 비롯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중일 삼국의 색채는 각 국의 풍토 즉 자연색과 기후 등의 영향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중국의 색채는 재료 본연의 색을 사용하고 있으나 넓은 국토와 상이한 기후대의 영향으로 갖가지 색의 재료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색이 있으며 유교의 영향으로 상징적, 계급적 색채 사용이 이루어졌다. 또한 민족 감정과 풍토의 영향, 여기에 중화사상이 곁들여져 채도가 높은 색과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진 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한국의 색채는 사회 조직 원리로서 작용했던 성리학의 영향으로 금채색 사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계급에 의한 색채 사용의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일상의 색채는 매우 소박하고 차분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장신구 등에서는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금욕적 인격을 지향하는 도교의 영향으로 백색, 청색 지향주의가 있었으며 풍토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명도와 중간 정도의 채도를 가진 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일본의 색채 특성은 양면성이라는 어휘로 표현되는데, 이는 건축과 실내에서는 자연색이 선호되나 장식과 의상에서는 매우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고, 한 물품에 있어서도 강렬한 대비를 강조하는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인에게서 나타나는 내외의 엄격한 구분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연적인 면과 인위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은 비가 많고 습윤한 풍토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채도와 명도를 가진 색들이 많이 나타난다. 장식과 문양에 있어서도 중국에서는 건축부재의 장식화가 두드러지며 지붕부 장식이 특히 발달했는데 이는 근검, 절약 정신의 강조하고 절제된 감정 표현을 덕으로 삼으며 감성을 경시하는 유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순수한 장식적 부재보다 의미론적 상징성을 부여하

2)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면에 흙이나 돌을 쌓고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로, 현대의 기초와 개념이 같다.

3) 권영길 :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국제, p176, (2001).

4) 한국 전통 건축은 비대칭 구성을 큰 특징으로 가진다.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5) 지붕의 재료로 유리가 사용된 당, 송 이후에는 지붕 형식이 다소 간결해졌는데, 이는 유리와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부분을 약화시켜 유리와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리원해, 이상해, 한동수, 이주행, 조인숙 : 중국 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p217, (2000).

여 필요에 의한 장식의 발현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건축과 도시와 같은 거대 스케일에서는 대범한 태도를 갖는 중국인들은 세부 장식에서는 매우 화려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즐기는데 이는 대소와 복잡성과 단순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중국인의 상대론적 사고에서 비롯된 조화 개념의 일종으로 보여진다. 한국의 장식과 문양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용의 미를 보이고 있으며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실용성과 예술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또한 현세 중심의 사고와 인간 중심 사상의 발현으로 대범성과 해학이 돋보이는 장식으로 생동감을 부여한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장식과 문양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 조화의 정신으로 간소하고 청순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건축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전개 개념이 문양에도 나타나 가로로 긴 형의 그리드가 나타난다. 또한 생략과 축약으로 장식을 패턴화하는 동시에 기교적인 세밀한 표현을 함께 즐겨 문양 표현에 있어서도 양면성이 나타나며 이는 일본인의 내외 구분 사상, 조화론 등과 관련되어 있다.

4.3. 한·중·일 전통 궁궐의 재료 특성

한중일의 전통 궁궐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아시아 삼국은 각 국가의 풍토에 맞는 자연 재료인 목재, 석재, 토제, 금속제, 초재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건축되었으며 특히 목재의 비중이 높다. 또한 재료는 기능에 부합하여 사용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금속제는 장식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삼국의 재료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목재 사용에 있어서 중국은 녹나무를 인위적 가공을 한 후 채색하여 금속 느낌이 나도록 매끈하게 처리하여 사용했고, 한국은 육송을 나무결을 살리면서 착색하여 색을 부여하면서도 목재의 성질은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편백나무의 껍질과 원목을 함께 사용했는데 인위적인 착색 없이 자연 그대로 사용하여 목재 본위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석재에는 흰 대리석의 일종인 백석이 중국에 사용되었으며 매끄럽고 견고하게 처리하여 잘 가공된 석재의 미려함을 살리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화강석을 이용해 거친 느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국에는 특수하게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중국은 황색 유리, 벽돌, 홍토, 유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청기와의 사용과 삼화토⁶⁾, 전돌, 막돌의 사용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지붕의 부재료로 사용된 대나무 외에는 특수 재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삼국은 재료의 가공과 표면 질감 처리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삼국 중 중국이 인위적 가공의 정도가 가장 높고 표면 질감 역시 가장 매끈하고 윤이 나도록 처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인위적 가공과 자연적 가공이 비슷한 정도로 사용되었는데, 한국의 경우가 자연적 가공의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질

6) 소석회와 세사, 백토를 1:1:1로 혼합한 것으로 지붕의 용마루 부분이나 꽃담의 무늬 선으로 사용되었다. 견고하고 수명이 길며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부터 나타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재료이다. (신영훈 : 서울의 궁궐, 조선일보사, 1997)

감 역시 두 나라 모두 거친 느낌에서 매끄러운 느낌까지 다양한 정도의 질감이 존재하나 한국의 경우에 인위적 가공 정도가 높을수록 매끄러운 질감이 나오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인위적 가공의 정도는 매우 높으나 거친 질감을 갖고 있는 재료가 발견된다. 이것은 인위적 가공을 통해 오히려 거칠게 표현하여 자연스러움을 부여하려는 일본의 재료 가공법의 특색을 보여준다.

<표 1> 전통궁궐건축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와 특성 비교

비교대상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
재료	종류	육송	녹나무	편백나무
목재	특성	육송의 껍질 벗기고 원목을 가공하여 인위적인 착색을 하여 사용됨	나무를 깎고 다듬어 화려하게 채색하여 나무결이 보이지 않도록 처리	편백나무의 껍질을 벗긴 원목과 껍질을 같이 사용하여 인위적인 착색없이 자연 그대로 사용됨
	종류	화강석, 전돌	백석 (흰 대리석의 일종)	화강석
석재	특성	다듬기와 깎기같은 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거친 느낌을 유지함	약간 거친 느낌이 들지만 다른 석재에 비해 매끄럽고 견고하게 처리하여 잘 가공된 석재의 미려함을 살렸음	다듬기와 깎기 같은 처리방법을 사용하여 거친 느낌을 유지함
	종류	흙, 석회, 기와	흙, 석회, 기와, 벽돌	흙, 석회, 기와
토제	특성	흙과 석회, 짚 등을 섞어서 바르며 부드럽고 고움, 기와는 약간 거친 느낌이 들며 선정전에서만 푸른색 유약 처리를 한 청기와 사용됨	흙, 석회를 부재료로 사용, 기와에 황금색 유약을 칠한 황색 유리와는 매끄럽고 광택을 지님, 흙을 사용해도 벽돌로 적석하여 담장 구성함	벽체 주재료를 흙과 석회로 마감하는 등 토재를 주요한 재료로 사용, 기와는 약간 거칠며 지붕부에 목재와 함께 사용됨
	종류	한지	*	회지
지재	특성	창호면에만 사용하였으며 부드럽고 질감	지재 대신 유리를 창호에 사용함	문살 바깥쪽에 바르며 부드럽고 잘 찢어짐
	종류	청동	청동, 금	청동, 금
금속재	특성	청동을 장식부재로 사용, '드무' 라고 하는 화재 방지용 물단지를 청동으로 주조, 벽체 창호문의 사각 귀퉁이에 장식으로 판금 주조된 것 사용함	청동을 장식부재로 사용, 금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함, '드무' 라고 하는 화재 방지용 물단지 청동으로 주조, 벽체 창호문의 사각 귀퉁이에 장식으로 판금 주조된 것 사용함	청동을 장식부재로 사용, 금의 사용이 부분적으로 나타남

<표 2 > 한중일 삼국의 재료 특성

비교 대상	한국	중국	일본	
분류				
공통성	자연재료의 사용 : 목재, 석재, 토재, 금속재, 초재 등 목재의 사용 빈도가 높음 기능에 따라 재료의 사용이 달라짐 금속재의 사용이 적고 주로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			
차 별 성	수종 목재가 공	육송 나무결을 살려 착색	녹나무 인위적 가공 후 채색	편백나무 껍질을 벗긴 원목과 껍질을 함께 사용
	석종 표면 질감	화강석 거친 질감	대리석(백석) 매끄럽고 견고하게 처리	화강석 거친 질감
	특수 재료	청기와, 삼화토 전돌, 막돌	황색 유리와 벽돌, 홍토, 유리	대나무
	가공과 질감	자연적 가공 정도가 가장 높음 가공성이 높을수록 매끄러운 표면질감	인위적 가공 정도가 가장 높음 거친 질감 배제 미끄럽고 단단함	가공성이 높으면서 질감이 거친 재료 존재 인위적으로 거친 질감을 부여해 자연스러움 추구

4.4. 한·중·일 전통 공예의 색채 특성

한중일 삼국의 색채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삼국의 색채는 공통적으로 Y~R, G30Y, B80G~B90G 색상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색조에 있어서의 저채도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연물이 갖고 있는 기본 색상과 채도로써 삼국의 뿌리 깊은 자연 친화 사상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채화나 단청이 있는 경우 색채중복이 증가했는데, 채화 또는 단청은 유교적 신분주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며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도 건물의 규모와 계급에 따라 그 내용과 색채가 달라지는 등의 특색이 있는데 이는 예제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중국의 색채는 삼국 중 유채색 사용비율이 가장 높으며 밝고 역한 색조를 제외한 전 영역과 부드럽고 동적이 이미지를 포함한 색채이미지 전 영역에 분포하며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느낌과 역동적인 강렬함, 인위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특색은 건축 의장 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높은 채도를 가진 다양한 색 사용의 실제 예를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색의 차이가 큰 배색을 주로 하여 역동적 이미지와 화려함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풍토적 영향과 함께 중국인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민족감정, 중화사상, 조화론, 상대관적 세계관 등의 배경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색채는 다양한 색의 미묘한 변화를 즐기며 주로 정적인 이미지의 색채를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딱딱한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특색이 있다. 이는

풍토의 영향과 함께 자연 친화 사상과 조화론이 발현된 것으로서 중국에 비해 채도는 낮으나 명도는 높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채도와 명도 모두 높다. 일본의 색채는 삼국 중 가장 단조로우며 무채색 사용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주로 정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의 색채로 차분하고 안정적 느낌을 추구하여 정적이고 자연스러운 색채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풍토적 영향과 함께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일본인들의 민족 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개별 색채의 독자적 발현을 제어하고 전체적인 조화에 부응하게 하는 색채에 있어서의 집단적 경향을 갖게 하고 있으며 건축 의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삼국 중 가장 낮은 명도와 채도를 지니게 한다.

<표 3 > 한중일 삼국의 색채 특성

	한국	중국	일본	
공통성	채화나 단청이 있는 경우 색채중복이 증가 색상 : Y~R, G30Y, B80G~B90G 색상 영역 포함 색조 : 저채도 영역(니조성 색조) 포함			
차 별 성	색채수 (유채색/무채색)	202(161/41) 다양한 색의 미묘한 변화 나타남	100(87/13) 유채색 사용비율이 가장 높음	65(46/19) 무채색 사용비율이 가장 높음
	색상	Y-R, G-G30Y, R80B-B, B-G R, YR 집중 P/RP 제외한 전 영역	Y-R, R70B-G60Y R-G 집중 B/P/RP 제외한 전 영역	Y-R, G30Y B80G~B90G, R,YR,Y 집중
	색조	Deep chromatic(4) 제외 Light clear(2), Brilliant(3) 영역 포함	밝은색조 제외한 전체 영역 Deep chromatic(4), Deep(8) 영역 포함	저채도 영역에 집중
	색채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딱딱한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분포	거의 모든 톤에 고르게 분포 R,YR 영역에서 V,S,B 포함 Gr, Di, Dp 영역 포함	Lgr, Gr, Di, Dk 집중 V,S,B,Di,Dp 제외
	전체 느낌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 자연스러움	다양하고 화려한 느낌 역동적인 강렬함 인위적	차분하고 안정적 느낌 정적이고 자연스러움

7)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에는 단청을 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남철 : 한국고건축단장, 통문관, (1977).

4.5. 한·중·일 전통 궁궐의 문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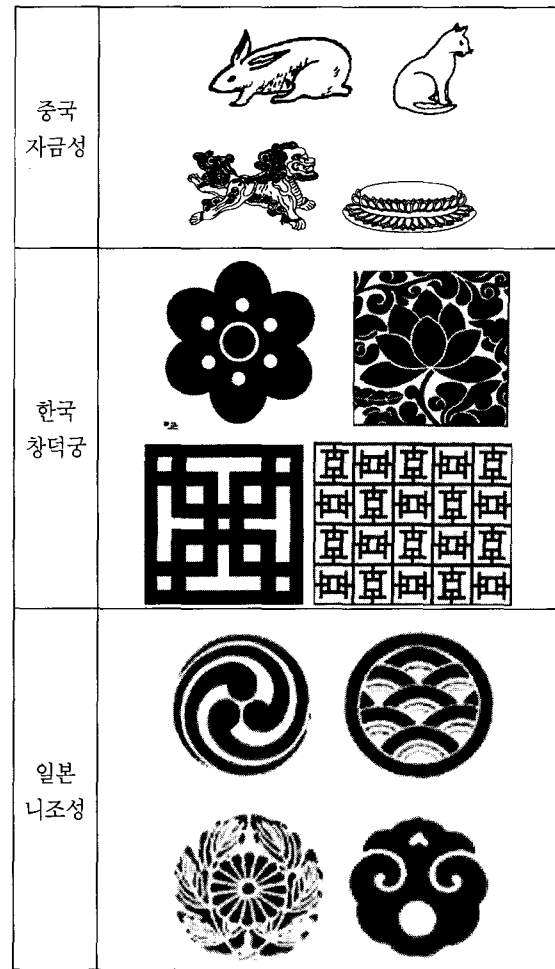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을 대상으로 한·중·일 문양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삼국의 문양은 공통적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문양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지붕 부위에 장식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길상과 관련된 문양이 가장 많고, 순수 장식을 위한 문양이 적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문양은 덩굴문과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에서 나타난 공통문양

자금성-창덕궁-니조성	창덕궁-자금성	창덕궁-니조성	니조성-자금성
덩굴문, 구름문 여의두, 봉황문	연꽃문, 만(卍)자문 해태, 빗살, 용	국화, 보상화 태평화, 십자	수피문

이에 비해 삼국은 문양의 종류 및 표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양은 중국이 용, 일본은 국화인데 비해 한국은 꽃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문양이 발견되어지나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구름이나 기하학적 선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배경이 되는 문양들에 있어 반복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하문의 경우, 일본은 큰 면적의 부위에서 간결하면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고, 한국은 다양한 변화와 재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국에서만 단독으로 나타난 문양은 토끼, 귀갑, 학, 고양이, 거북, 기린, 산, 말 등으로 주로 동물 문양이었으며, 한국의 단독 문양은 오얏꽃, 치자꽃, 수련, 죽대살, 아(亞)자살이다. 일본의 니조성에서만 나타난 문양은 태극과 란마에서 나타난 눈, 투구, 새, 대나무, 나비, 소나무 문양이 독자적이었다.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중국에서는 특히 장수와 관련된 문양이 많았으며 일본에서는 벽사의 의미로 사용된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음이 그 특징이며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중국의 문양이 가장 사실적이고 양감이 풍부하며, 색채가 강하고 다양하다. 그에 비해 일본의 문양은 양식화되고 세밀하여 가볍고 산뜻한 맛이 있으며 한국의 문양은 도톰한 선으로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특색이 있다. 한중일 삼국의 문양을 장식성과 소박성의 비교에서 본다면 삼국 중 한국의 문양이 가장 소박하며 인위성이 적고, 일본의 문양이 가장 세련된 장식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과 일본의 경우 기교와 장식을 비교했을 때, 중국은 세밀한 표현과 사실적 묘사를 즐기는 반면 일본의 문양은 생략과 축약으로 양식화한 후 세부 표현을 즐기는 특색이 있다.

<표 5> 한중일 삼국의 궁궐에 나타난 특징적 문양



5.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니며 이는 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된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5-1. 한·중·일 삼국 의장 문화의 근간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자연 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문화이며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건축에 있어서 자연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한 공간, 음양조화와 풍수에 의한 조형, 내외부의 중첩과 상호관입, 목조 가구식 건축 등의 공유된 특성을 낳았다. 이러한 건축적 배경 위에 조성된 의장은 삼국 문화의 뿌리 깊은 자연 친화 사상으로 인하여 자연 재료의 사용, 자연색 계열을 이용한 색채, 자연 모티브에서 출발한 문양 등의 공통 특성을 갖고 있으며 미의식의 발로를 제어하고 목적이 있는 부제만을 인정한 유교 문화는 문양에 있어서 순수 장식을 위한 것이 적고 지붕부의 기능을 겸한 문양을 증가케 했다. 각 국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건축과 의장의 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중화사상의 영향이 가장 크고, 한국에서는 일본 주의, 일본에서는 집단 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각 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임을 알 수 있게 한다.

5-2. 한국 의장 문화의 특성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문화의 많은 부분도 두 나라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어 온 한국의 의장 문화 특성은 자연적 가공도가 높고 거친 질감이 많은 재료 특성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로 색의 다양하고 마묘한 변화를 즐기며 유사배색을 주로하는 색채 특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양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도톰한 선으로 소박한 인간미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삼국 중 문양의 완성도는 가장 떨어지나 생동감은 가장 충만해있다. 이러한 의장적 특성은 자연 순응적인 공간 배치와 선적 구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공간 조직 등의 특성을 갖춘 건축적 배경 위에 조성되었다. 한국의 의장 문화는 그 재료적 면에 있어서는 주로 풍토와 자연친화, 조화론, 유교적 상고주의 등의 동아시아의 공통 사상과 한국인들의 특성인 현세 중심의 세계관, 중용의 미, 일본 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채는 풍토와 자연친화사상, 조화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동감있는 소박함으로 대범성과 해학을 나타내는 한국의 문양은 자연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사상 등을 근거로 일본 주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즉, 한국의 의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 소박함 등의 특징은 뿌리 깊은 자연 친화 사상과 조화론, 일본 주의 등의 발현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이 된 조선 시대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의장에 있어서의 세련된 장식미는 확연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술의 조악함에서 그치지 않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의장에 생명을 부여하는 근본적 자연 친화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자연 친화 사상은 반드시 인간이 함께 있는 개념으로서 자연 속에 인간의 행위로 이룬 건축 또는 의장을 부여하고 그것을 인간이 자연과 함께 즐길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장은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완성된다.

5-3. 중국 의장 문화의 특성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의장 문화는 재료에 있어서 인위적 가공도가 가장 높으며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 질감을 즐긴다. 색채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대비배색을 주로 하며 문양과 장식에서는 사실적 묘사와 양감이 풍부하고 세밀 묘사로 장식적이다. 이러한 의장 특성은 엄격한 좌우대칭과 폐쇄적 공간 구성을 중시한 중국 건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중화 사상에 의한 영향이

크다. 주된 사상적 기반은 재료 특성은 주로 풍토와 자연친화, 조화론, 유교적 상고주의 등의 동아시아의 공통 사상과 중국인들의 특성인 순자연적 세계관, 중화사상, 상대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 사용은 풍토와 중화사상, 조화론, 상대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실적이며 섬세하고 인위적 가공이 많은 문양은 자연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사상 등을 근거로 중화사상, 상대론적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중국의 의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함과 화려함, 세밀함 등은 도시나 건축에서의 장대한 스케일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상대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구상적이고 과장적 이미지로서 스스로를 뽐내는 듯 표현하는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5-4. 일본 의장 문화의 특성

중국 문화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며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의장 문화가 그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과 교량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고유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온 한국에 비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 일본의 의장 문화는 재료 면에서는 인위적 가공도가 높으며 조성된 거친 질감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과 장식에 있어서는 세련된 생략과 축약을 기본으로 기교와 장식을 더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장은 건축에 있어서의 비대칭 구성과 수평적 전개들 그 특징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재료 특성은 동아시아의 공통 사상과 일본 문화의 특성인 내외의 엄격한 구분에 의한 집단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인위적 가공을 통해 재료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기법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으려하는 자연 친화의 경향과 개별 재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의 집단주의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자연스러운 색채는 풍토와 자연친화사상, 조화론,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식화, 세밀화 되어 있고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의 문양은 조화론, 집단주의, 음양오행, 우주천문사상, 유교의 충(忠) 사상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의장에서 나타나는 차분한 색채와 세련된 조화미는 집단주의의 확장된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자연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자연 친화 사상에 비해 일본의 자연 친화는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자연과 혼연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밑에서 숨죽여 가라앉아 있다. 즉, 세밀한 인위적 조작과 공력을 기울여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가벼운 장식을 세련되게 조성하고 조작된 거친 질감을 만들어 넘으로써 개별 재료 및 문양, 색채의 독자성은 사라지고 전체 자연만이 남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5-5. 한·중·일 의장 문화 비교

한중일 삼국에 나타난 의장 특성은 재료와 문양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이 양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재료와 문양은 가장 인위적이고 사실적이며 한국의 재료와 문양은 가장 자연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가공이 증가할수록 재료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문양의 표현이 사실화되고 복잡해진다는 비례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재료와 문양은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인위적 가공성이 높으나 재료 표면은 자연적 느낌이며 문양은 추상화되어 있다. 즉, 가공도가 높을수록 재료 표면이 거칠어지며 문양의 표현이 간략화되는 반비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문양 자체에 있어서의 생략과 축약 속의 세밀화라는 양면성과 병립한다. 재료와 문양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에 비해 색채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위치에 한국이 있는데, 이는 건축물 외부의 색채만을 비교한 결과이다. 즉, 화려한 색과 유채색도가 높은 중국과 무채색이 많고 전체적 색조가 안정적인 일본에 비해 한국의 색채가 그 중간의 성격을 띠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면서 색조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문화의 위치 즉,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가 선을 중심으로 한 형태 위주의 연구가 많았기에 파악되지 않았던 특색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색채는 풍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임을 생각할 때, 재료의 가공과 문양은 풍토 등의 자연적 영향보다는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각 민족의 의식과 창의의 발현으로 파악된다.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에 있어서의 차이는 한중일 삼국의 자연 친화 사상의 표현에 근거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자연 친화 사상이 중국에서 발현될 때는 자연보다 인간이 상위의 개념으로 상대의 개념이 항상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인간이 완벽하게 재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인위적 가공에 의한 세밀한 표현과 화려한 색채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의 자연 친화 사상은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개념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자연 속에 순응시키고, 인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자연을 추구하기에 자연의 미묘한 색 변화를 닮은 배색과 부드러운 선과 소박한 이미지의 문양, 재료의 자연스런 가공을 사용한다. 한편, 일본의 자연 친화 사상은 인간보다 상위의 자연으로서 자연의 조화로움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인간은 숨어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가공을 더해 오히려 거친 질감의 재료를 조성하고, 인간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차분하고 안정적 색채를 즐기며 문양에 있어서도 기교와 장식을 통해 자연에 숨어 드러나지 않는 가벼운 장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리원희외,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2000
- 주남철, 한국고건축단장, 통문관, 1977
- 신영훈, 서울의 궁궐, 조선일보사, 1997